다시보는 불모지

❸ 불교와 돈& 불교 굿즈

한반도 화폐 유통 장본인 '대각국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이슈는 재테크,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불교와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접점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 통용되는 지폐는 1천원 · 5천원 · 1만원 · 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퇴계이황 · 율곡이이 · 세종대왕 · 신사임당이 도안돼 있습니다.

이 중 세종대왕이 그려졌던 1만원권 지폐의 본래 주인공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부처님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본존불입니다.

1972년 4월 23일 〈선데이 서울〉에는 '1만원권 미리 좀 구경합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당시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한가마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석굴암 부처님의 인자스러운 모습이 담긴 새 1만원권은 전등불에 비추어 보거나 자외선 아래서만 보이는 색깔들이 들어 있어 위조는 100% 불가능하다."

당시 함께 게재됐던 사진을 보면 앞면에는 무궁화와 석굴암 부처님이, 뒤에는 불국사 전경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 경제 성장에 맞춰 박정희 정부는 처음으로 1만원권이라는 고액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선정위원회는 1만원권 앞면에 국보 제24호인 석굴암 본존석가여래좌상을,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넣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원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만원권 시쇄품에 사인을 합니다. 실제 보면 박 대통령 사인 위에 1972년 4월 4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1만원권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통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개신교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국가 화폐를 통해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냐"가 이유였습니다.

불교계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반대했습니다. "신성한 부처님 상호를 세속적 가치의 상징인 돈에 넣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양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석굴암 부처님 1만원권은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세종대왕 초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진영.



그렇게 1973년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원권 지폐가 유통되는 데, 여기에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만원권 제작을 준비하며 영국서 지폐용지를 특별 주문해서 수입했습니다.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왼쪽 희게 비어있는 자리에 석굴암 협시보살 중 하나인 문수보살상을 넣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에서 도안이 세종대왕으로 바뀌었지만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넣었던 문수보살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1973년 발행 만원권을 전등에 비춰 보면 문수보살의 상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화폐 유통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주화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된 것은 고려 숙종 때입니다. 숙종은 1097년 주전관(화폐를 만드는 관원)과 주전도감(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하고 1102년부터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죠.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식적인 화폐 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화폐 유통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왕인 숙종이 아니라 스님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천태종의 개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죠.

의천 스님은 아버지가 문종으로 본래 신분이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에게 출가를 권했는데, 이때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넷째 아들 왕후, 훗날 의천입니다.

그렇게 의천 스님은 11살의 나이에 출가해 불문에 귀의하고 공부를 위해 송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송나라에서 유학을 하며 당시 송나라의 화폐 경제를 목도하게 되고 화폐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은 귀국 후 자신의 형인 숙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폐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죠.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부 귀족과 관리들은 쌀이나 옷감 등을 현물 거래하면서 곡식에 다른 것을 섞고 불량한 옷감을 되팔았습니다. 흉년에는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 현물거래의 폐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관리나 귀족이 쌀과 옷감의 수량을 속일 수도 없고, 국가의 쌀 비축도 가능해져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운반도 편리해지고요. 의천 스님은 이런 이유로 화폐 도입을 주장한 겁니다.

결국 화폐 유통을 계기로 문벌 귀족들이 장악했던 상업의 유통권을 고려 왕조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의 상징인 돈. 조금만 살펴보면 불교와의 연관된 역사들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반도에 화폐가 유통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굿즈 어디까지 만나봤나요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혹시 여러분은 '굿즈(Goods)' 라는 말은 아시나요? '굿즈' 는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에 진열된 것들은 제가 중국과 일본에서 사온 불교 굿즈입니다. 여기 있는 귀여운 불보살들은 중국 쓰촨의 도심 사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순서대로 아미타불, 대일여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동명왕입니다. 특히 보살들은 중국식으로 캐릭터화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잘 표현하고 있고 문수보살의 상징인 지혜의 검과 사자도 귀엽게 표현됐습니다. 보현보살 역시 코끼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피규어들은 일본 교토 한정판입니다. 불교 신장이나 불상을 피규어로 제작해 뽑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일본 교토 사찰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천국인 일본에는 지역과 사찰과 연계된 한정 굿즈들이 많습니다. 유명 관광 사찰인 금각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헬로우 키티' 굿즈를 비롯해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등의 금각사 한정 굿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기 만화 〈원피스〉의 교토 한정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필자가 중국과 일본서 구입한 불보살상 굿즈들.

유명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매니아라면 좋아할 만한 교토 한정 머그컵도 있습니다. 도안을 잘 살펴보시면 금각사 등 유명 교토 사찰들의 대표 전각들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에서도 이 같은 굿즈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크리에이터 위즈덤하트가 선보인 상품들이 불교 굿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스타트업으로 불교 굿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계 언론에도 소개됐던 '아코' 는 스타트업 기업이 대표적이죠. 조계사 청년회가 불교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자체 브랜드 '본디나' 를 필두로 템플스테이 기념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의 굿즈 산업은 대중적으로 소위 '핫'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불교 굿즈를 놓고 신앙을 세속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교가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일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금각사를 갔을 때 충격을 받은 장면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양인 아이가 금각사 기념품 숍에서 금각사 한정 디즈니 캐릭터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양인 아이들이 금각사의 전각이 뭔지, 부처님이 뭔지 뭘 알겠습니까. 일본 어린이들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금각사 전각이 그려진 디즈니 상품을 보면서 훗날 일본 불교와 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것만으로도 저 굿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각사 입장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입장권은 그냥 확인하고 버리는 매표용입니다.

그런데 금각사 입장권은 다릅니다. 일종의 부적, 수호부로 꾸며져 있습니다. 내용은 가내가 평안하고 운수대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먼 곳까지 찾아온 참배객에 대해 항상 평안하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배려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한국불교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경주와 불국사 한정 아기공룡 둘리, 뽀로로, 라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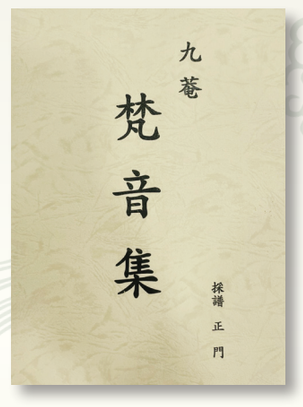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육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구암스님 범음집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